

소비 촉진 행사 '5월 동행축제' 개최

전북지방벤처기업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5월 1~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 중기청)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동행 축제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맵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5월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상생 기획전이 열리고 홈앤쇼핑과 공동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리 지역에서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문화·예술·관광·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북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동행축제가 진행된다.

먼저, 동행X글로컬상권 판매전(5월 2~4일)은 전주국제영화제 시즌과 연계하여 전주 글로컬상권 일대(남부시

장, 전라감영, 웨딩거리, 객사길, 영화의 거리 등)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컬 소상공인 쇼케이스(판매부스),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원도심 큐레이티와 함께하는 '글로컬상권 탐방 프로그램'과 스텁프투어, 네트워킹 라운지 프로그램, 커뮤니티 시네마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위커비 하우스마켓과 연계한 커뮤니티 영화 상영회에서는 유건 배우가 호스트로 참여, 다양한 지역 이슈를 담은 단편영화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95회 남원

춘향제가 개최된다.

동행 축제와 함께 '세일페스타'를 진행하여 남원시내 상점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게 되면 특별할인이나 경품 추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박걸리축제와 애시장 지역 농축산물 판매전 등 지역 소상공인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많은 행사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판인 '소답스퀘어 전주'를 통해서 리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판매)를 진행한다.

동행X글로컬상권 판매전, 남원 춘향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제품에 프로모션을 더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상근기자



NH농협은행 전주시지부가 실력과 바른 인성을 두루 갖춘 전주 인재 양성을 위해 29일 전주교육지원청에 전주시 교육발전 기부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교육발전 기부금 5000만원 전달

농협 전주시지부, 초·중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NH농협은행 전주시지부가 실력과 바른 인성을 두루 갖춘 전주 인재 양성을 위해 29일 전주교육지원청에 전주시 교육발전 기부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찾기어려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돋고 사회성 회복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부금은 전주교육지원청 주관 선발 절차를 통해 전주 관내 초·중학교 14개교에 지원될 예정이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돋고 풍부한 감성을 가진 어른으로의 성장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 세일즈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지역신생기업 지원사업으로 '농식품기업 Sales-Up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기업 Sales-Up 지원사업'은 도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약기간 내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식품제조 기업 총 2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 당 최대 일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고도화 전략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판로개척(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 디자인개발(브랜딩, 상세페이지 제작 등), 공정생산(생산 공정 효율화 등) 기준

기준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민족도 제고는 물론 매출 증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농산부산물 새활용, 새싹기업 지원으로 물꼬 튼다

농진청,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김ぐ불산물 산업화 가능

농촌진흥청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신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한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김ぐ불산물 산업체가 일부 가능해졌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새활용(Recycling)의 합성어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준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기업(스타트업) 중 주비유의 '김ぐ불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민족도 조사 등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과제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추즙파',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김ぐ불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농업용수 수질 조사 안심하고 안전하게

농어촌공, 농업용 저수지 등 1053개소 연 7회 수질 조사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975개소에서 78개소 늘어난 1,053개소에 대해 수질 조사를 시행하며, 연 4회 진행하던 정기

조사는 연 7회로 확대했다.

특히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연 1~2회에 그쳤던 조사를 연 4회로 확대하여, 카드뮴, 납, 비소 등 인체와 농작물에 유해한 물질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측정망 조사 외에도, 공사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1만 7,000여 개소에 대한 수질 조사를 병행한다.

이러한 다중적 조사 체계는 오염 진후를 조사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이부 환경관리처장은 "더욱 춤출해진 수질 조사 체계는 단순한 수질 모니터링을 넘어, 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5월 7일 개통

발급 등 중요한 업무는 5월 2일 금요일 18시 전에 미리 준비해 두기를 권장한다.

이번 통합플랫폼 시스템은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제공 △디지털 신기술 기반 지능화된 업무환경 구성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먼저 국민 편의 중심 주요 서비스로는 기가입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성, 상담 이력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계

강화를 통해 제출사류 간소화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한 홈페이지, 모바일웹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사업장 민원 서비스는 모든 신청과 처리를 국민연금EDI로 일원화하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